

# KWPA 뉴스레터

## ■ KWPA 뉴스

### [ ‘2018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여성’ 대토론회 개최 ]



21세기여성정치연합은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2018 지방선거 유권자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7월 18일(수)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여성”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2018년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900명(남자 445명/여자 455명)을 대상으로 2018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의 정치의식과 여성후보에 대한 투표행태를 설문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음재 상임대표의 개회인사를 시작으로 이연숙 전 장관, 남인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순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나윤경 원장, 여성가족부 이건정 여성정책국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토론회에서는 김정숙 본 연합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의 기초강연과 송경재 경희대학교 교수, 김원홍 상지대학교 초빙교수의 발제가 이어졌으며 토론에는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참여했다.



김정숙 대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여성후보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정당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지율이 높은 정당에서 여성을 공천하게 되면 여성들은 당선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과거부터 올해 제7회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그나마 여성참여가 조금씩 증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제도의 힘이 컸음을 지적하며 보다 강력한 법제도의 개선이 시급함을 주장했다.

김형준 교수는 강연에서 “여성 지역구 30% 공천을 약속했던 여·야 정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선거법 개정을 위한 범여성운동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0년 프랑스가 남녀동수 선출을 위해 헌법을 개정한 것처럼 우리도 헌법 조문에 남녀가 동등하게 선출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원홍 교수는 ‘지방선거의 역사 및 동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미 유럽이나 아프리카 등 전 세계 국가 중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이 여성발전 뿐 아니라 전체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 하에 선거제도로 이를 보장하는 나라가 많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도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차원에서 여성정책 지향적 마인드를 가진 여성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수가 증가해야 하며,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 역시 강화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경재 교수는 “자신의 정치적 행동이 정치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개인의 감정을 나타내는 정치 효능감에 있어 여성이 남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여성들의 투표참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이어 여성정치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한 대안으로 교육을 꼽으며, 특히 공교육 제도에서 실시하지 못하는 다양한 여성정치의식과 성평등 운동을 시민단체와 지자체 등 각급 기관에서 공동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조은희 구정창과 최금숙 회장의 토론에서는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안으로 남녀동수선출제, 여성 지역구 할당제 30% 의무화 도입, 공천심사위원회 규모 확대 및 50% 여성위원 참여 의무화, 정당 경선 시 여성후보 가산점제 확대 등 법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 [21세기여성정치연합 경기도 지부장 취임식 개최]



21세기여성정치연합 경기도지부는 지난 7월 18일(수) 12시 한국프레스센터 국화실에서 지부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귀녀 본 연합 경기도 의정부시 지회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이음재 상임대표의 축사가 이어졌다.

경기도 지부장으로 취임하는 조양민, 빈미선 지부장에게 인준장 수여를 한 뒤, 이날 함께 취임하는 수원시 양민숙, 화성시 이선주, 평택시 조승자, 과천시 하영주, 성남시 맹영미, 오산시 김지혜, 부천시 곽내경, 용인시 심숙보 지회장이 각각 새로 취임하였다.

## [21세기여성정치연합 서울시 지부장 취임식 개최]



지난 7월 18일(수) 한국프레스센터 엠바고룸에서 21세기여성정치연합 서울시 지부장으로 이숙연 지부장이 취임했다. 김정숙 대표의 축사에 이어 이숙연 지부장에게 인준장이 수여된 후 서울시 25개 각 구의 지회장으로 종로구 이영숙, 중랑구 이영숙, 광진구 윤호영, 도봉구 차명자, 용산구 우미경, 마포구 이영미, 동작구 김효숙, 서초구 최윤희, 금천구 박정미, 구로구 변분선, 서대문구 김경희, 강서구 라윤희, 노원구 김명희, 동대문구 황기옥, 성동구 이지순, 송파구 김순애, 성북구 임경희, 중구 이해경, 은평구 소심향, 양천구 최혜숙, 영등포구 박정미, 관악구 현미경·김갑생, 강남구 이향숙·최민숙, 강동구 차혜진, 강북구 권혜영이 함께 취임함으로써 서울시 지부 활성화를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 ■ 2018 전국동시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

### 2018 전국동시지방선거

#### [유권자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분석]

구분		여성후보자수 (총 후보자수)	여성후보 비율(%)	여성당선자수 (총 당선자수)	여성당선 비율(%)
광역자치단체장		6(71)	8.5	0(17)	0
기초자치단체장		35(749)	4.7	8(226)	3.5
광역의회의원	지역구	274(1,886)	14.5	98(737)	13.3
	비례대표	209(295)	70.8	62(87)	71.3
광역의회 합계		483(2,181)	22.1	160(824)	19.4
기초의회의원	지역구	992(5,318)	18.7	526(2,541)	20.7
	비례대표	799(882)	90.6	374(385)	97.1
기초의회 합계		1,791(6,200)	28.8	900(2,926)	30.8
계		2,309(9,147)	25.2	1,068(3,993)	<b>26.7</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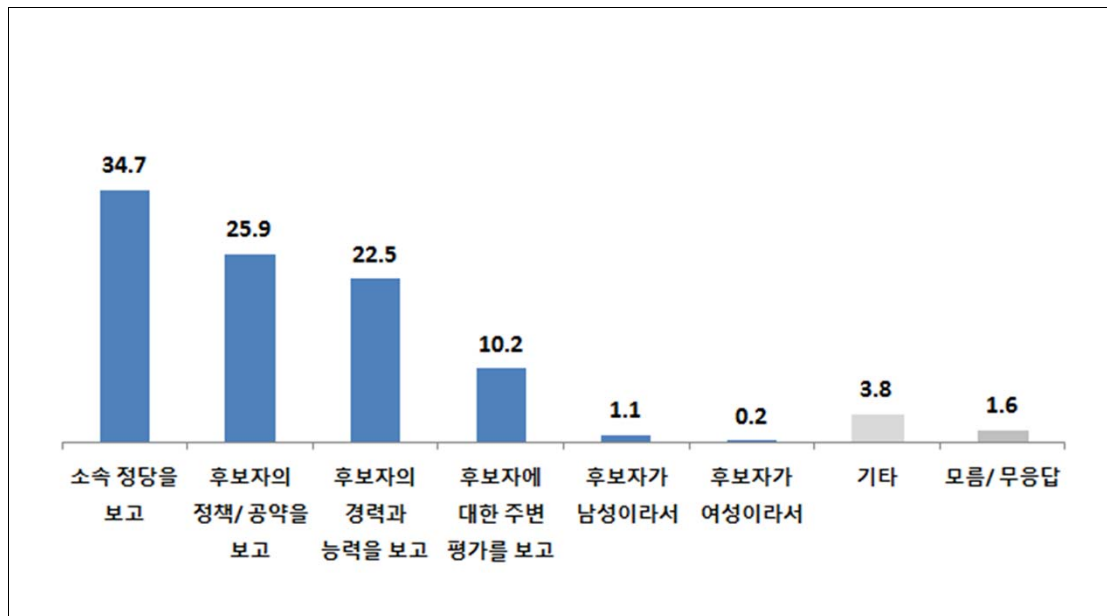
- 6.13 지방선거 결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포함하여 총 3,993명 당선자 중 여성은 1,068명이 당선되어 여성당선비율 26.7%를 기록했다. 이는 2014년 선거에 비해 여성의 정치적 진출이 약간 증가한 수치이다(당선 비율 5% 증가).
- 지역구 여성 후보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았다. 기초 및 광역의원 지역구 선거에서 각각 18.7%, 14.5%의 여성 후보가 출마하여 지역구 선거 대부분은 남성 후보가 우세하였다.
- 비례선거는 광역비례 70.8%, 기초비례 90.6%로 여성 후보자가 수적으로 우세하였다.
- 대도시를 중심으로 여성후보가 많이 출마하였고, 당선비율도 높았다.
  - : 기초단체장 여성후보 총 35명 중 서울 11명, 경기도 7명, 부산 6명이 출마하였고, 광주와 강원도, 경상북도에는 없다.
  - : 지역구 광역의원 여성당선인 총 98명 중 서울 18명, 경기도 24명, 부산 7명, 광주 6명, 대구 5명, 울산 5명, 대전 3명, 세종 2명, 강원도 4명, 충북 4명, 충남 5명, 전북 2명, 전남 3명, 경북 3명, 경남 4명, 제주 3명, 인천에는 없다.
  - : 지역별 편차의 원인으로 대도시에는 유권자들이 남녀 정치인에 대한 차별적인 성향이 낮고 여성정치인의 풀도 넓기 때문으로 보인다.

• 유권자 투표행태

- 6·13 지방선거 유권자들의 후보선택 기준에 관해서는 후보자의 소속 정당(34.7%), 후보자의 정책/공약(25.9%), 후보자의 경력과 능력(22.5%) 순으로 나타났다.
- 후보자의 성별을 선택기준으로 삼는 경우는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후보 역시 남성후보와 동등하게 당선가능성이 있으며, 무엇보다 후보 선택기준으로 소속 정당이 1순위인 것으로 볼 때 승리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정당이 보다 많은 여성을 공천한다면 여성정치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6.13 지방선거 지역후보 선택기준

(N=79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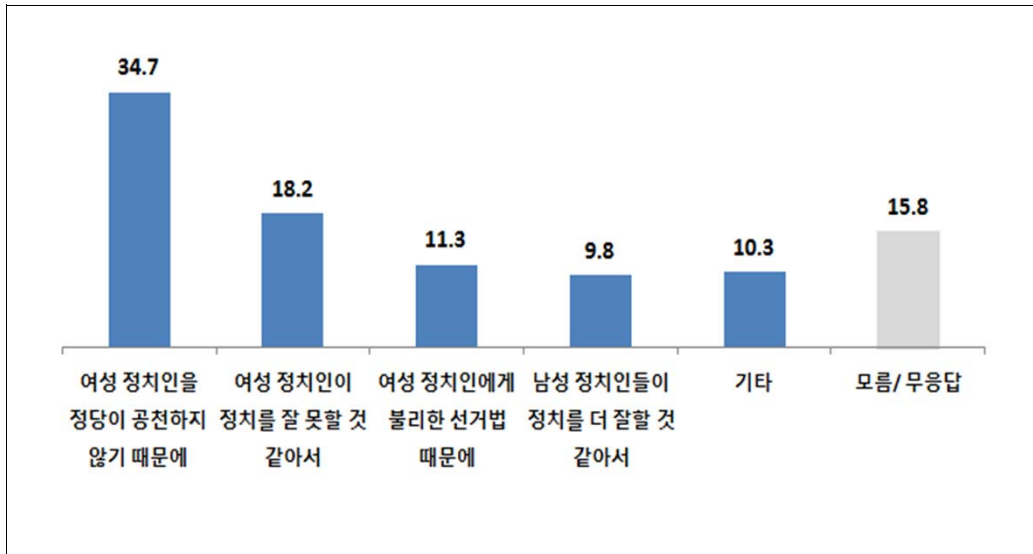


• 여성후보에 대한 인식

- 6.13 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가 26.7% 당선된 결과에 대해, 낮다고 평가한 수치가 53.0%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10명 중 절반 가량이 이번 선거에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낮았다고 평가했다.
- 다른 국가 대비 여성 정치참여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성 정치인을 정당이 공천하지 않기 때문에’라는 의견이 34.7%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 정치인이 정치를 잘 못할 것 같아서’(18.2%), ‘여성 정치인에게 불리한 선거법 때문에’(11.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다른 국가 대비 여성 정치참여 낮은 이유

(N=900, 단위: %)



- 다음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입후보자의 사회적 지위나 경력, 능력 등이 비슷한 조건일 경우 남성후보와 여성후보 중 누구를 선택할 지 물어본 결과, ‘여성후보’ 선택 응답이 35.8%로 ‘남성후보’ 선택 27.2% 보다 높게 나타났다.

(남자 응답자 중 24.3%가 여성후보를, 31.2%가 남성후보를 선택했으며, 여성 응답자 중 47%가 여성후보를, 23.4%가 남성후보를 선택함.)

(남성후보: 남성, 자영업자, 보수 응답자, 자유한국당 지지자, 여성 정치 참여가 많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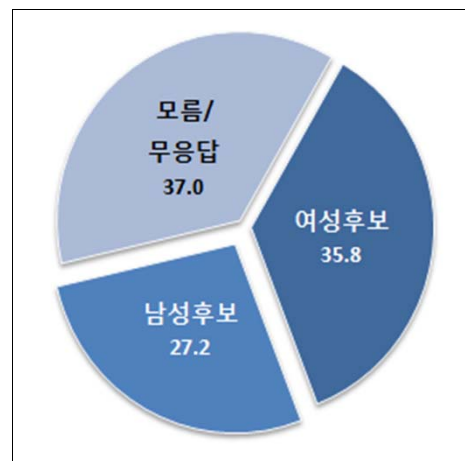
(여성후보: 여성, 가정주부, 중도 응답자, 여성 정치 참여가 낮다고 낮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서명 및 집회참여자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를 통해 여성후보에 대한 정치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보다 많은 여성후보 공천과 선거제도의 개선노력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으로 인하여 ‘여성 정치인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안 좋아졌다’ 응답은 48.0%, ‘여성 정치인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안 좋아졌다’ 응답은 23.0%, ‘여성 정치인에 대한 이미지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응답은 25.3%로 여성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사회적 지위/경력 등 비슷한 조건일 경우 성별 후보 선호도

(N=900, 단위: %)



## • 유권자 정치의식

- 투표를 통한 사회현안에 대한 영향 정도(정치효능감)를 물어본 결과,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응답이 75.6%로 높게 나타남. 특히 여성 유권자 (76.8%)가 남성(74.4%)에 비해 다소 높은 수치를 보여 여성의 정치효능감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볼 때 여성들의 특성에 부합하는 여성친화적인 공약이나 정책이슈의 마련이 필요하다.
- 남녀 국회의원 후보비율을 동등하게 하자는 법에 대해서는 찬성 62.3%, 반대 29.4%로 '찬성'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여성 응답자 중 찬성 비율이 72.6%로, 남성 찬성 51.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성차별/미투운동이 미치는 사회 영향력에 대해서는 '성평등 문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는 응답이 37.7%로 가장 높았으며, '성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29.8%, '한국 사회에서 고질적인 것으로 일시적일 것이다' 16.5%, '왜 이런 문제가 중요한지 모르겠다' 8.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신뢰한다' 35.6%, '신뢰하지 않는다' 54.6%로 불신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 현 정부를 포함한 역대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신뢰한다' 43.1%, '신뢰하지 않는다' 45.6%로 두 응답이 비슷한 수치로 조사됐다.
- 공동체와 본인의 이익 충돌 시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 물어본 결과,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65.9%로, '개인'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 28.3% 보다 높게 나타났다.

□ 설문조사 결과 여성후보에 대해서 부정적일 것이라는 유권자들의 인식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번 조사에서 2020년 21대 총선에서 사회적 지위나 경력 등이 비슷한 남녀후보 중 누구를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여성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35.8%) 남성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보다(27.2%) 높았다. 즉, 조건이 같다면 여성정치인의 선거경쟁력은 결코 낮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 6·13 지방선거 유권자들의 후보선택 기준으로 소속 정당(34.7%) 후보자의 정책/공약(25.9%), 후보자의 경력과 능력(22.5%)순으로 정당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다는 점과 특히 여성을 선택하는 유권자들 대부분이 후보의 소속정당을 보고 지지하는 성향이 높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지지율이 높은 정당에서의 여성 공천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 [김정숙 대표, 세계여성단체협의회 회장에 재선임]

21세기 여성정치연합 김정숙 공동대표는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Yogyakarta)에서 열린 제35회 세계여성단체협의회 총회에서 회원국 대표단의 만장일치로 회장에 재선임되었다.

이번 총회에는 한국을 비롯한 60여 회원국을 대표한 여성리더와, 인도네시아 여성대표 등 2,00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개막식에는 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참석하여 세계여성단체협의회 총회 개최와 창립 130주년을 축하하였다.



세계여성단체협의회 총회는 3년마다 열리며 이번 총회는 “Transforming Society through Women’s Empowerment” 주제 아래 지난 3년간 국가별, 지역별, 분야별 활동을 보고하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2021년까지 3년간 세계여성단체협의회를 이끌어가게 된 새로운 회장단은 ‘여성과 소녀를 위한 사회적 보호: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Social protection for women and girls: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he world)’을 앞으로 3년간의 주제로 선정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여성과 소녀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 [제23차 Federation of Asia-Pacific Women's Association 총회 참석]



김정숙 대표는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 23 차 Federation of Asia-Pacific Women's Association(FAWA) 총회에 참석했다.

본 연합이 회원단체로 가입되어 있는 FAWA는 1959년 필리핀에서 아시아 여성들의 관계 증진 및 협력을 위해 설립된 이후 여성에 대한 교육, 정치참여, 생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정한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제 23차 총회의 주제는 Our Heritage-Peace, Our Challenge-Sustainable Development로 특별히 올해는 FAWA의 창립 60주년 기념식도 함께 열렸다.

회의에서 필리핀 부통령 Leni G. Robredo 여사가 기조연설을, 명예회장인 Medeleine Z. Bordallo 여사와 GFWC 前회장인 Sheila Shea여사, 그리고 김정숙 대표의 인사말이 그 뒤를 이었고, 점심에는 상원의장인 Vincente C. Sotto III의 연설이 있었다.

이번 총회에서 김정숙 대표는 전임 회장으로서 Minerva G. Laudico Award를 수상했다. FAWA는 아시아 태평양 주변국의 주요 여성단체들이 회원단체로 참여하고 있으며 김정숙 대표가 FAWA 회장으로 역임한 2014년에는 서울에서 총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 [트럼프에 ‘분노’, 미투에 ‘연대’... ‘여성 정치’ 돌풍]

상·하원의원 중 여성 23%... 2년 만에 3%p 상승  
여성 123명, 비백인 111명, 여성 다양성도 한층 강화



미국 중간선거 결과 내년 1월 출범하는 제116대 의회에 진출하게 된 여성 의원 수는 최소 123명이다. 이는 상원의원 100명과 하원의원 435명 등 모두 535명 가운데 23%에 해당한다. 하원은 여성의원 101명이 당선에 확정돼 사상 처음 100명을 넘었다.

현재 115대 의회는 20%로 하원의원 중 여성은 83명, 상원 100명 중 21명이다. 100명 중 임기가 끝난 23명만 뽑은 상원은 여성 의원 12명이 당선돼 현재와 마찬가지로 23명이 유지됐다.

정당에 따른 여성 당선자 수도 큰 차이를 나타냈다. 하원의원 당선자 가운데 민주당이 88명, 87%로 압도적이다. 공화당은 한국계인 영 김을 포함해 13명이 당선됐다. 백인이 아닌 여성의원이 40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는데, 역시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 소속이 16명이고, 비 백인은 4명이다. 주지사는 전체 50명 가운데 9명이 여성으로 2004년, 2007년과 같다. 민주당 소속이 2명에서 6명으로 늘어났다.

인종도 한층 다양해졌다. 히스패닉 출신이 하원의원 43명과 상원의원 4명, 흑인이 하원 46명과 상원 3명, 아시아계 출신이 하원 12명과 상원 3명이다. 이번 선거에서 처음 당선된 여성 35명 가운데 공화당은 1명에 불과하다.

### 여성 당선인 증가 요인

당선자가 많았던 것은 그만큼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중간선거에 276명의 여성 후보가 상하원과 주지사 선거에 나섰다. 하원의원 여성 후보로는 총 237명(공화당 52명, 민주당 185명)이 출마했다. 이처럼 여성 후보가 쏟아져 나오고 여성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몰표를 보낸 것은 예상치 못했던 2016년 대선 결과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한 몫 했다.

여기에 지난해 말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운동(#MeToo)으로 촉발된 ‘성난 고학력 백인 여성들의 심판’이 현실화하면서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더욱 활발해지고, 정치문화 혁신의 추동 세력이 될 가능성이 보여줬다는 평가다. 또 여성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 확대는 후원금으로도 확인됐다.

비영리 정치자금 감시단체 CRP에 따르면 여성 유권자들은 민주당 여성 후보들에게 1억5900만 달러를 기부했다. 이는 2016년의 2.5배 수준이다. 대선후보로 꼽히는 여성인 커스틴 질리브랜드 민주당 상원의원의 경우 전체 후원금의 56%가 여성으로부터 나왔다.

NBC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결과를 자축하고 있지만 밀레니얼 세대와 여성표 없이는 2020년 대선에서 재앙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 여성+인종·민족·성적 지향 교차

알렉산드라 오카시오 코르테스(29) 당선인은 역대 최연소 연방 하원 의원으로 뉴욕주 14선거구에서 당선된 라틴계 여성이다. 그는 이미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유력한 차기 하원 원내대표로 거론되던 10선의 조 크롤리 의원을 누르며 일약 스타로 떠올랐다.

아야나 프레슬리(44) 당선인은 매사추세츠주 첫 흑인 연방 하원 의원으로 기록됐다. 그는 지난 9월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10선 하원의원인 마이클 카푸아노를 물리치고 당 후보로 나섰다. 매사추세츠주에서 유색인종 여성이 의원 후보로 나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다. 미키 세릴(46) 당선인은 뉴저지 연방 하원의원에 처음 도전한 파일럿 출신의 정치 신인이자 네 아이의 어머니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지지한 공화당 제이 웨버 후보를 꺾었다

템 할랜드(57), 샤리스 데이비스(38) 당선인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미주 원주민 여성 출신 연방 하원의원이 됐다. 뉴멕시코주에서 캔자스주에서 당선된다. 데이비스는 성소수자이기도 하다. 라시다 틀레입(42) 당선인은 팔레스타인 이민자 가정의 딸이다. 그는 2008년 미시간주 의회 의원으로 선출된 첫 무슬림 여성 의원이기도 하다.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의 디트로이트 유세 때 항의하다가 내쫓긴 일화로 알려진 인물이다.

일한 오마르(37) 당선인은 소말리아 난민 출신으로 1997년 미네소타주에 정착했다. 2016년 미네소타주 최초 무슬림계 의원이 됐다. 그는 당선 후 연설을 통해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제러드 폴리스 당선인은 성소수자임을 밝혀온 인물이다. 로라도주 주지사 선거에서 승리해 미 역사상 최초의 커밍아웃 게이 남성 주지사 기록을 세우게 됐다.

[출처: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1769>]

---

## ['여성도 지도할 수 있다' 에티오피아 '첫 여성 대통령' 탄생]



사흘레-워크 쥬드 에티오피아 신임 대통령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상징적인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 처음으로 여성이 선출됐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의회는 새 대통령에 여성 외교관인 사흘레-워크 쥬드(68)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에티오피아 의회는 몰라투 테쇼메 전 대통령이 갑자기 사임함에 따라 새 대통령을 뽑았으며, 에티오피아에서 여성 대통령이 탄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원내각제인 에티오피아는 행정부 수반인 총리가 실질적으로 국정을 담당하고 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 원수로 통한다. 대통령은 법률 공포, 외국 대사의 신임장 접수, 사면권 행사 등의 권한을 갖는다.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태어난 쥬드 신임 대통령은 프랑스의 몽펠리에 대학에서 자연과학을 공부했다. 그리고 프랑스·지부티·세네갈 등에서 에티오피아 대사를 지냈고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직전에는 아프리카연합(AU)에서 유엔 대표로 활동했다. 그는 의회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직후 “나는 평화 부재로 가장 먼저 고통 받는 어머니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를 지켜달라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 대통령의 등장은 에티오피아에서 최근 여성이 정치적으로 중용되는 분위기를 보여준다. 앞서 아비 아흐메드(42) 에티오피아 총리는 지난 16일 내각을 개편하면서 전체 장관 20명의 절반인 10명을 여성으로 채웠다. 에티오피아 국방장관에 처음으로 여성을 임명했고, 신설된 평화장관에도 여성을 발탁했다.

당시 아흐메드 총리는 “여성 장관들이 ‘여성은 지도할 수 없다’는 옛말이 틀렸음을 입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흐메드 총리는 올해 4월 취임한 뒤 반체제 인사 대거 석방, 분쟁국 에리트레아와의 종전 선언 등 잇단 개혁적 조치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는 인물이다.

에티오피아 총리실의 피섬 아레가 수석보좌관은 트위터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 국가 원수의 임명은 미래를 위한 기준을 만들 뿐 아니라 여성들을 공적인 의사 결정자로서 정상화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067089>]

---

## [유엔총회, 바첼레트 차기 유엔인권대표 만장일치 승인]

유엔총회가 10일 미첼 바첼레트(66) 전 칠레 대통령을 신임 유엔 인권최고대표로 승인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이에 앞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지난 8일 이달 말 퇴임하는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현 인권최고대표의 후임으로 바첼레트 전 대통령을 지명하고 유엔총회에 이를 통보했다.



유엔총회는 이날 193개 유엔 회원국의 전원 동의(컨센서스)로 바첼레트 전 대통령을 차기 유엔 인권 최고대표로 승인했다.

바첼레트 전 대통령은 2006~2010년 칠레의 첫 여성대통령을 지냈으며, 2014~2018년 재선에 성공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양성평등과 여성권의 증진을 위한 유엔 여성기구 총재를 지냈다.

대통령 임기 동안 그는 증세를 통한 복지정책, 낙태 일부 허용, 동성결혼 공식 허용 등 정책을 펼쳤다. 이와 함께 온화한 스타일, 꾸준한 경제성장으로 칠레 국민의 인기를 얻었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80810168600072?input=1179m>]

---

## [여성 공무원 77.4% “승진에 성차별 있다고 느껴”]



중앙부처 여성 공무원의 77.4%는 승진에 ‘성차별’이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남성 공무원의 64.9%는 ‘여성임용 목표제’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확연한 인식차를 보였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월 23~27일 45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1만5천5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직 내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인식조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인식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됐으며 응답자의 68.3%는 남성, 31.7%는 여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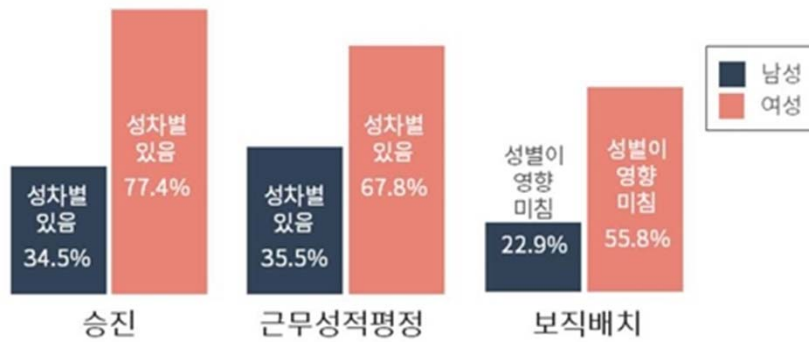
인사혁신처는 지난 2월 23~27일 45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1만5천5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직 내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인식조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인식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됐으며 응답자의 68.3%는 남성, 31.7%는 여성이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승진에서 남성의 64.5%는 `성차별이 없다`고 봤지만, 여성의 77.4%는 `성차별이 있다`고 생각했다. 여성은 주요 차별원인으로 남성중심 조직문화(29.8%), 출산·육아휴직 사용의 불이익(22.4%)을 꼽았다. 근무성적평정에서도 남성의 64.5%는 `성차별이 없다`고 했지만, 여성의 67.8%는 `성차별이 있다`고 했다.

여성들은 주요 차별원인으로 특정성에 대한 관대한 평가 관행(29.0%), 핵심부서 경력부족(27.1%)을 들었다. 보직배치에 성별이 영향을 미치는지 묻는 말에 남성의 55.6%는 부정했지만, 여성의 55.8%는 미치는 편이라고 답했다. 여성의 주요 보직배치 장애요인으로 남·여 공무원 모두 `가사 및 육아 문제`를 1순위로 꼽았다.

2순위로는 여성이 `관리자의 여성기피`, 남성이 `책임성·적극성 부족`을 각각 거론했다.



성차별적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을 묻는 모든 문항에서 남·여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았고, 여성임용 목표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여성의 경우 40.9%이지만 남성은 64.9%로 차이가 났다. 아울러 관리자의 성별에 대한 인식을 묻는 모든 문항에서 `성별 무관`이 70~80%대로 높게 나타났다.

예컨대 관리자가 업무에 관해 결정할 때 `남성이 잘한다` 14.2%, `여성이 잘한다` 4.8%, `성별 무관`이란 응답이 81.0%였다. 공무원들은 관리자의 성별보다는 개인성향과 능력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해석이다.

이 밖에 여성상사와 근무경험이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여성상사와 근무경험이 있고, 그 기간이 길수록 성에 대한 편견이 적고, 여성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29/0200000000AKR20180429062300001.HTML?input=1179m>]

## ■ 국내외 여성 정치 연구자료 소개

- 김은희, 김민정, 오유석 저,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기획; 살림정치 여성행동 엮음, 『 정치의 한복판, 여성 : 젠더 정치의 그늘』, 서울: 신명기획(2013).
- 김원홍,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여성공천과정 분석을 통한 대표성 증진방안구』,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2).
- 손혜현, “제도가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에 미치는 영향 : 아르헨티나 여성할당제 법을 중심으로”,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49 No.1*, (2009).
- Pamela Paxton, Melanie M. Hughes, “Women, politics, and power : a global perspective”, *Los Angeles : Pine Forge Press, c*,(2007).
- Schmid, C, “Women, Work, and Politics: The Political Economy of Gender Inequality by Torben Iversen, and Frances Rosenbluth”, *Journal of Women, Politics & Policy, Vol.34 No.3*, (2013).

## ■ 이달의 책



[여성은 어떻게 살아남을까]  
우에노 지즈코 지음·박미옥 옮김  
챌터하우스

일본에서 1970년대 여성해방운동이 태동한 이후 국제화와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여성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돌아본다.

젠더 평등 정책 추진, 남녀고용기회균등법 제정, 노동규제 완화, 저출산, 만혼과 비혼의 증가, 남성혐오와 여성혐오, 기업의 성차별, 일과 삶의 균형 등 일본 사회가 겪은 현상들을 이야기한다. 이는 오늘날 한국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현상들이기도 하다.

일본의 경험을 다룬 책이지만 최근 페미니즘과 남성·여성 혐오가 부각되고 있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